장자우대 상속·종손의 가계계승·제사 관행…

'전통'은 아주 특별한 과정 거친 결과물

'한국의 유교화 과정'

마르티나 도이힐러 지음

장자우대상속, 종손의 가계계승, 제사 관행….

지난 세기까지 존속했던 한국 사회의 특징이다. 소위 '전통'이라고 불렀던 이러한 사회의 모습은 어느 특정시기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랜 시기에 걸쳐, 특별한 과정을 거치면서 형성된 변화였다.

흔히 '유교화 과정'이라고 불리는 이 같은 변모는 조선의 건국과 함께 점진적으로 이루어졌다. 이후 17세기 중반에 이르러 조선의 양반 사회는 적장자 중심의 문중 사회로 재편되었다.

'한국학의 대가' 스위스인 마르티나 도이힐러(런던대 명예교수)가 쓴 '한국의 유교화 과정'은 우리의 '전통'을 다각도로 조명한다. 도이힐러 교수는 15~16세기 성리학(신유학)이 도입된 동기는 무엇이었으며, 사회에 미친 영향은 무엇이었는지 파헤친다.

이를 위해 도이힐러 교수는 150여 종의 사료, 290여 편의 저작을 인용한다. 특히 사회인류학 방법론과 연계해 가계계승, 조상숭배, 친족, 상속, 결혼, 상장례 등 6개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국의 역사를 통찰한다.

조선을 창건한 엘리트 집단은 당대 정치사회

문제를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었다. 즉 통치 집단의 이데올로기를 전파하고 이를 현실에 착근시켜야 했다. 요즘으로 치면 '국정 정상화'와 같은 맥락이었다.

고려 사회는 친족구조상 양계사회였고 한 남자가 여러 명의 부인을 둘 수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인은 친정에서 살았

조선 창건의 주역들
한국식 유교화 원해
여성 사회적 지위 약화

기에 남편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않아도 되었다. 신분적으로도 동등한 자격을 부여받았다.

더욱이 고려 말에는 첨설직(군공(軍功)을 포상하기 위해 설치된 관직) 등을 통한 신분 상승이 대대적으로 일어났었다. 지배층의 괭창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사회였다.

조선 건국 주역들이 적장자 중심의 부계 귀속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였다. 모계를 통한 지배 신분의 확산이나 특권의 계승을 저지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의미다. 서얼 차별과 같은 중국에 없는 독특한 사회 관습이 생기게 된 연유다.

이러한 신유학 이론으로 인해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근본적으로 변하게 된다. 결혼과 더불어 시가의 구성원으로 간주되었고 경제적 독립성도 상실하기에 이른다. 심지어 과부가 된 부인은 일시적으로 그 유산을 간수할 뿐, 재산 처리에 관여할 수 없었다.

여성의 권위 상실은 신분제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엘리트 여성만이 적자를 낳을 자격이 주어졌고, 지위가 낮은 여성은 첩이 되었고, 그 자식은 서자(녀)가 되었다. 친정의 방문조차도 특별한 경우에만 허용되었다.

이처럼 창건 주역들은 중국과 변별되는 한국식 유교화를 추진했다. 고대 중국에 존재했다는 완벽한 이상사회를 조선에 재건하려는 비전은 말 그대로 비전에 지나지 않았다.

"유교 사상은 중국 사회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지만 한국에서는 세계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보기 힘들 정도로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그것은 중대한 변화이긴 했어도 한국 전통의 전형적인 요소가 그대로 잔존했기 때문에 유교화는 한국을 작은 중국으로 창조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의 특수한 문화를 만들어내게 했다."

〈너머북스·2만7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유쾌한 입담·사상으로 무장한 구보씨가 왔다

'철학자 구보씨의 세상 생각'

문성원 지음

'구보'는 1934년 소설가 박태원이 창조해낸 인물이다.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에서 첫선을 보인 '구보'씨는 세월이 흘러서도 우리 앞에 자주 나타난다. 소설가 최인훈과 최인석이 소설가 구보씨를 다시 불러냈고, 연극으로 미술로 구보씨는 함께였다.

이번에는 유쾌한 입담과 사상으로 무장한 철학자 구보가 출현했다.

부산대 철학과 교수로 재직중인 문성원씨가 펴낸 '철학자 구보씨의 세상 생각'은 우리와 같은 시대를 사는 구보씨가 들려주는 일상과 거기서 파생되는 철학이야기다.

한국철학사상연구회가 운영하는 웹진 'e시대와 철학'에 실린 글들로 필자가 '시장자본주의와 자유주의 비판'이라는 주제를 의뢰받고 쓴 것들이다.

'구보씨, 누드모델을 꿈꾸다', '구보씨 뱀파이어가 되다' 등 모두 5장으로 구성돼 있는 책은 박찬욱 감독의 '박쥐'를 비롯해 '영화, 소설 등 우리에게 친숙한 소재들을 활용해 일단 재미있게 읽힌다. 특히 무상급식, 안철수 등 사회 현상들을 통해 존재의 의미, 인간의 본성 등 철학의 주제들을 풀어내는 점도 인상적이다.

필자와 다른 의견을 거침없이 쏟아내고, 독자가 궁금해할 법한 점들을 꼬치꼬치 캐물어 주는 등장 인물 Y의 존재가 반갑다. 〈알렙·1만30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맛'이라는 감각으로 일깨운 인간의 본성

'여름의 맛'

하성란 지음

올해 황순원문학상을 수상한 하성란 작가가 다섯 번째 소설집 '여름의 맛'을 펴냈다. 2006년 '웨하스'를 출간한지 7년 만에 발간한 신작으로, 황순원문학상 수상작인 '카레 온 더 보더'를 포함해 모두 10편의 단편이 수록돼 있다.

그동안 그녀는 우연과 폭력의 양면성을 지닌 삶을 내밀하게 들여다보는 작품을 써왔다. 이번 소설집에서는 좀더 그 '바라봄'의 시각이 깊어지고 독특해졌다. 사실 하성란 소설이 천착하는 감각의 세계는 언어가 표상하는 어떤 의미나 상징을 뛰어넘는다. 육체가 식별하는 특유의 느낌을 전달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표제작 '여름의 맛'은 그러한 하성란식 소설의 진수다. 주인공 최는 일본 여행 중 은각사를 금각사로 잘못 알고 찾아간다. 일본인이 몸으로 이해하는 '킨가쿠지'와 '긴가쿠지'의 발음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 탓이다. 최는 그곳에서 만난 남자가 건넨 복숭아 껍질을 벗기고 단물을 빨아먹은 뒤 "당신은 복숭아를 정말 좋아하게 됩니다"라는 말을 듣고는 저주에 걸린 것처럼 그 맛을 찾아 헤매기 시작한다.

이처럼 '여름의 맛'은 읽는 이로 하여금 모든 감각을 동원해 다 읽어내지 못한 숨겨진 의도와 이야기를 찾게 한다. 그러한 감각을 부르는 읽기는 인간의 본능, 본성을 다각적으로 만나게 한다. 〈문학과지성사·1만3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삶의 고통도 사랑으로 견뎌야 함을…

'그리움이 묻은 내…'

류의암 지음

97년 '문학과 비평'으로 등단한 류의암 시인이 두 번째 시집 '그리움이 묻은 내 빈자리'를 펴냈다.

시인은 미적 진정성을 화두로 삼아 서정적인 세계를 선보인다. 정연한 구성미와 간결한 언어는 일상의 모습들을 한 폭의 수채화로 담아낸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악과 이기심으로 가득한 '세상'이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시인은 단절과 소외의 세상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극기와 사랑으로 담담하게 견뎌내야 함을 역설한다.

"새벽을 풀어헤친 불덩이가/ 일렁이는 파도를 넘어/ 거침없이 은광을 쏟아낸다/ 그리고 시퍼런 칼날이 되어/ 내 심장 깊숙이 파고든다"('나의 변신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중에서)

모든 악과 부정적 세계를 초월하고자 하는 의지는 시적 당위성을 넘어 신학의 문제로까지 확장된다. 신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고통 속에서도 시는 마지막까지 시인의 무기가 된다. 〈한림·8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좌충우돌' 청소년들의 성장소설

'너 지금 어디가?'

김한수 지음

싸움꾼·사기꾼·마마보이… '삽질'하는 청춘들이 몰려온다.

학교 텃밭을 가꾸며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는 법을 배워 나가는 청소년들의 좌충우돌 성장기 '너 지금 어디가?'가 나왔다.

중등 교육 현장에서 추천도서로 꼽히며 꾸준히 읽혀 온 '봄비 내리는 날'의 장성 출신 김한수 작가가 처음으로 청소년소설을 냈다.

저자는 창비 문학 블로그 '창문'에 인기리에 연재됐던 원고를 수정하고 보완해 문학적 완성도와 재미를 높였다.

아무에게도 환영받지 못했던 소위 '문제아' 주인공들이 텃밭을 가꾸며 변화하는 모습이 계절에 따른 작물의 성장과 맞물려 조화롭게 그려지면서 독자들에게도 풋풋한 생명력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책은 대안과 희망을 노래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학교를 꿈꾸는 교사와 학부모에게 긍정의 신호를 켜 보인다. 〈창비·1만원〉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인류 역사를 구현하는 세 요소는 생산·억압·인식

'쟁기, 칼, 책'

어니스트 겔너 지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역사가와 사상가들은 인류 역사의 패턴을 이해하고 미래 사회를 예측하려고 애썼다. 하지만 인간 사회의 복잡성과 다양성, 우연성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사회인류학 교수였던 어니스트 겔너(1925~1995)의 유작 '쟁기, 칼, 책'이 나왔다. 그는 이 책에서 역사의 '예측 불가능성'을 단언한다. 원시사회에서 농경사회, 산업사회로 이어지는 이른바 3단계론을 제시하지만 역사 발전의 필연적인 메커니즘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겔너에 따르면, 사회질서란 이를 구성하는 요소로부터 파생된 하나의 결과물이다. 하지만 그 요소의 집합이 다른 결과물을 낳을 수 있었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한다. 똑같은 카드를 쥐고서도 다른 방식으로 패를 쓸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다. 우리는 과거에 어떤 선택이 왜 이루어진 것인지를 알 수도 있고 알지 못할 수도 있다.

겔너는 인류 역사에 작용하는 기본적인 요소로, 생산과 억압 그리고 인식을 제시한다. 쟁기, 칼, 책은 인류 역사를 구현하고 있는 세 가지 요소의 상징물이다. 이 상징물들은 문화와 언어, 개념, 감수성, 권력, 이데올로기, 합법화, 테크놀로지에 이르기까지 인간 사회의 중요한 키워드와 만나면서 역사의 방향을 견인했다고 본다. 〈삼천리·2만2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신간

▲인문학은 밥이다=인문학을 둘러싼 기대와 우려에 일갈하는 책 '인문학은 밥이다'. 30년간 문학과 철학을 배우고 가르친 인문학자 김경집이 "인문학은 어떤 길을 가야 하는가"를 묻고 답하는 과정에서 소명의식을 갖고 집대성한 인문학 입문서다. 12개 인문학 분야에 걸쳐 입문자들이 꼭 알아야 할 맥락과 배경지식을 담았다. 각 학문이 추구해야 할 사회적 목적에 대한 제언도 덧붙였다. 〈RHK·2만2000원〉

▲가슴높이로 공을 던져라 1,2=5남매를 수재로 키운 포항 농부 황보태조씨의 자녀 교육 이야기. 저자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와 5남매를 기르면서 경험한 내용들을 재미있게 소개했다. 2000년 출간되어 자녀 교육 분야 베스트셀러에 올랐던 '뀡 새끼를 몰며 크는 아이들'의 개정판이다. 미진했던 부분을 다듬어 2권까지 동시에 출간했다. 수백 회 강연을 하면서 청중들과 대화를 주고받으며 새롭게 깨친 자녀 교육의 지혜가 담겨 있다. 〈올림·각 권 1만3000원〉

▲그들은 왜 신발 대신 휴대전화를 선택했는가=세계은행 선임투자정책관 여한구가 바라본 또다른 세계 그리고 개발현장.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가난과 부패 그리고 전쟁이라는 악순환에 빠져 있던 '나머지 국가'들이 지금은 당당히 세계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저자는 희망이 보이지 않았던 이들이 어떻게 경제 성장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는지, 그 발단은 무엇이었는지 언급한다. 〈알마·1만6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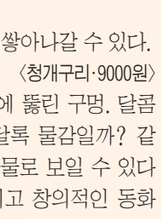
▲한국인의 탄생="망국 조선,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우리 한국인은 태어났다." '오월의 사회과학'을 통해 1980년 5·18 광주민중항쟁을 확고부동한 학적 언어로 정립했던 최정운 교수가 근현대 한국과 한국인을 주제로 진행해온 오랜 연구를 15년 만에 일단락 지었다. 저자는 한국인을 주인공으로, 시대와 대결한 근현대 한국인이라는 인식틀을 관철해 거대한 서사를 완성했다. 〈미지북스·2만원〉

▲멍키스패너='이것이 인간인가'의 저자 프리모 레비의 또 다른 대표작. 화학자와 작가를 병행하던 저자가 전업 작가의 길을 선언하며 내놓은 첫 번째 장편소설로, 이탈리아 문학 최고 권위의 스트레가상(1978년) 수상작이다. 자신의 일을 사랑하는 떠돌이 조립공 파우소네의 이야기를 통해 '인간과 노동', '일과 자유'에 대해 흥미롭고 진지한 성찰을 시도했다. 〈돌베개·1만3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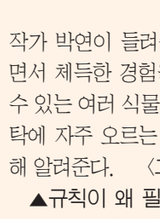
▲커피의 역사='베를린일보'의 기자이자 작가였던 하인리히 에두아르트 야콥이 1934년 발행했던 커피 안내서. 책 자체가 커피 역사의 일부가 된 고전이 완역본으로 나왔다. 커피의 발견에서부터 커피를 생활의 일부로 수용하기까지의 과정이 드라마틱하게 전개되고, 커피가 음료의 기능을 뛰어넘어 문화로 정착하며, 현대사회의 사고와 감정을 규정하기에까지 이른 과정을 소개한다. 커피의 역사와 영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참고서다. 〈자연과 생태·2만2000원〉

어린이 책꽂이

▲해님이 집에 갔나 봐=따뜻하고 넉넉한 가슴으로 아이들을 감싸는 순천 출신 박예자 시인의 유아동시집. 시인의 동시에는 어린 아이들의 생활과 감정과 의식이 고스란히 살아나 생생하게 담겨 있다. 시편마다 번뜩이는 재치와 구김살 없고 순수한 언어의 아름다움이 사물의 본질을 꿰뚫으며 빛나는 감동으로 다가온다. 엄마 아빠가 시를 읽어주면서 아이와의 깊은 공감대를 쌓아나갈 수 있다. 〈청개구리·9000원〉



▲아이스크림 똥=책 속에 뚫린 구멍. 달콤한 아이스크림일까? 알록달록 물감일까? 같은 형태이더라도 다양한 사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동화책.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매력적인 색감으로 담아낸 그림이 감수성을 키워준다. 의성어와 의태어가 반복돼 아이들의 언어발달에도 도움을 준다. 〈살림어린이·1만원〉



▲심청전=고등학생인 저자가 직접 번역하고 새롭게 각색한 영작 고전소설. 효심이 지극한 심청이와 어린 딸을 훌륭하게 키워낸 심 봉사의 효와 사랑의 기반 위에 저자만의 새로운 해석으로 가족애를 더했다. 한국어와 영어를 한 눈으로 비교하며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매력을 발견할 수 있다. 〈어드북스·8000원〉

▲식물, 어디까지 아니?=식물은 어떻게 자랄까? 어떤 땅을 더 좋아하고, 식물을 직접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농부 작가 박연이 들려주는 식물이야기. 농사 지으면서 체득한 경험을 토대로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여러 식물의 이름을 알아보고, 우리 식탁에 자주 오르는 친근한 식물의 한살이에 대해 알려준다. 〈고래가 숨쉬는 도서관·1만2000원〉

▲규칙이 왜 필요할까요?=모두가 지켜야 할 약속, '규칙' 이야기. 딱딱하지 않은 엉뚱하고 발랄한 이야기로 규칙을 풀어간다.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귀여운 카툰과 규칙에 대해 궁금한 질문이 4개의 챕터에 담겨 있다. '규칙을 꼭 지켜야 해!'라는 말보다 더 효과적으로 규칙의 중요성을 알게 해준다. 〈한림출판사·1만3000원〉